



ILO와 IMO, 선원 인권보호지침 제정추진

사고와 관련된 선원의 공정한 대우 촉구

최근 들어 유류오염사고를 일으킨 선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해사기구(IMO) 공동작업반은 사고와 관련된 선원의 공정한 대우를 촉구하는 지침(guideline)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작업반은 최근 이 지침에 대한 초안을 확정하고, 앞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의서형태로 이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초안은 모든 국가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한 선원에 대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막기 위해서는 되도록 빨리 사고 조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ILO와 IMO는 결의서를 통해 사고가 일어난 후에 선원에 대한 신속한 송환이나 승선을 허용하는

절차도 아울러 채택할 방침인 데, 선원의 인권을 다루는 ILO와 해사문제를 전담하는 IMO가 적극 나서 이 같은 결의서를 채택하는 것은 최근 들어 각국에서 사고와 관련된 선원들을 억류하거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동작업반은 오염사고 이후 각 나라에서 선원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데, 선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항만국의 법률이나 법 집행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뜻하지 않게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 작업반은 오염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선원이 불모로 억류되는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OECD, 중국 세계철강생산 26% 차지

중국은 지난해 전세계 철강 생산량의 26%인 2억7천만톤 생산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밝혔다.

프랑코 마나토 OECD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OECD와 국제철강협회(IISI)가 주최한고위급 회담에서 잠정 통계를 인용, "지난해 전세계에서 10억5천만톤의 철강이 생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나토는 특히 중국의 지난해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22.5% 증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기

간 전세계 생산량은 8.7% 늘었다.

2004년 생산량 지역별 비중을 보면 유럽 회원국들이 20%, 미국과 캐나다가 13%, 아시아 회원국들(중국은 비회원국)이 16%를 각각 차지했다.

OECD는 또 올해와 내년에 전세계 철강 생산량이 5%, 3.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중국은 14%, 11%씩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